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안남기 | 종합기획분석실장(3705-6232)

미국 2Q GDP 및 6월 PCE에 주목. 글로벌 IT 장애 이후 파장도 관심

- 7.25일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작년 4분기 전기연율기준 3.4%에서 금년 1분기 1.4%로 큰 폭 둔화된 가운데 2분기에 어느 정도 반등했을 지 주목
 - 현 컨센서스는 1.8%이나 기관별 범위는 1.2~2.6%, 아틀란타연은은 2.7%까지 보는 등 편차가 큼



- 7.26일 미국 6월 PCE 가격지수 발표. 근원PCE 지수는 1~4월 전년동월대비 2.8%를 지속 후 5월에는 2.6%로 하락했으나 금번에는 정체 가능성. 다만 전월대비로는 5월 0.1%에서 0.2%로 반등 예상. 헤드라인지수는 5월 2.6%로 반락 후 금번 2.5% 내외로 하락 가능성
- 7.25일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발표. 지난주 신규 청구건수는 24.3만명으로 작년 8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해 노동시장 냉각을 시사한 바 있어 금번 수치에 관심
- 지난 7.19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장애가 복구되었지만 금주 장애의 지속 가능성, 관련 기업 주가 움직임, 주요국의 IT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등에 주목

중국, 캐나다의 금리인하 여부에 주목. 러시아는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

- 중국인민은행은 6.22일 LPR(대출우대금리) 결정. 1년(3.45%) 만기 금리는 작년 9월 이후 동결, 5년(3.95%) 만기 금리는 금년 2월 인하 이후 동결해오고 있음
 - 지난주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가 2.5%로 동결되어 이번 금리도 동결 전망이 우세. 다만 중국 내 분석기관들은 여전히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지켜볼 필요



- 캐나다 중앙은행은 7.24일 통화정책회의 개최. 지난 6월 '22~'23년 통화긴축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4.75%로 25bp 인하 후 금번에도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
- 러시아 중앙은행은 7.26일 통화정책회의 개최. 지난 6월까지 4회 연속 정책금리를 16.0%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6월 CPI 8.6%)로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존재

한국 2Q GDP의 둔화폭에 주목. 일본 7월 도쿄 CPI도 관심

- 7.25일 한국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발표. 1분기 전기 대비 1.3%로 깜짝 반등 후 금번에는 내수회복 지연으로 0.1%로 둔화 예상되나 하회할 가능성에도 유의
- 7.26일 일본 7월 도쿄 CPI 발표. 헤드라인지수는 지난 6월 전년동월대비 2.3%, 근원지수는 2.1%로 2개월 연속 반등 후 금번 추가 상승 여부에 관심



바이든 대선후보 사퇴 표명 이후 정국 향방에 주목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21일 대선후보 사퇴 표명. 대체 후보를 위해 미니 예비선거(필요시), 전당대회 3,900여명의 대의원 및 739명 수퍼대의원 선거를 통해 과반후보 선출
- 향후 관심은 △금주 바이든의 연설 내용 △트럼프와 민주당 잠재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빠른 부각 △바이든 선거자금의 신속한 이전 여부 △트럼프 후보의 반응 등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속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7.25~26일 브라질에서 개최. △기후기금 등 지속가능금융 △국제금융 체제 △개도국 부채 △엔화 등 주요국 통화 등이 논의
- 7.23일 Alphabet, Tesla, 24일 IBM 등의 2분기 실적발표 지속. 지난주 미국 주가가 테크주 평가 우려, 글로벌 IT 장애로 일부 조정을 보인 가운데 이번 실적이 주가를 지지할지 관심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 헤즈볼라와 후티반군의 대규모 공격 파장에 관심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금주 미국을 방문해 7.22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4일 의회 연설. 최근 양국간 갈등이 봉합될 지 여부에 관심
- 한편 지난주 후티반군의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격 및 레바논의 이스라엘 다수 정착촌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에 주목.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재개될 휴전협상의 향방도 주목

